



한국 수영 간판스타 박태환(19·단국대) 선수가 14일 오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계영 800m 결승에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힘차게 역영하고 있다. 박태환은 이날 1위로 터치패드를 찍어 수영 3관왕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전남 3위 향한 '쾌속 질주'

전남체고 김성호 육상 4관왕 등 금 사냥 총력

광주 육상 등 선전 불구 목표 13위 어려울 듯



개최지 전남은 종합3위 목표달성을 위한 레이스에 힘이 실렸지만 광주는 당초 목표인 종합13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5일째인 14일 여수 망미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멀리뛰기에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던 김덕현(광주시청)이 18m3으로 21년만에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오전 육상(광주시청)도 육상 남자일반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추가했고, 이보나(우리은행)와 김찬미(기업은행)는 사격 여자 일반 더블트랩과 공기소총(개인)에서 각각 금총상을 물리며 베이징올림픽 노메달의 불명예를 털어냈다.

오성환(광주선발)은 전날 최준상에 이어 승마 일반 대장애물에서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최성호(삼성에스원)는 태권도 남자일반 미들급에서 금빛발차기를 성공시켰다.

김대엽(광주체고)은 육상 남고 창던지기에서 은메달, 이우주(남구청)는 레슬링 남자일반 자유형 55kg에서 역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명지혜(한국체대)는 유도 여자일반 57kg이하, 김달은(HI코리아)은 수영 여자일반 개인혼영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에서 광주대는 여자일반 농구에서 동메달을 확보했고, 정구에서는 동신고와 동신여고, 동구청이 모두 승리해 동메달을 확보했다. 이외에 전남여고와 광주선발은 각각 펜싱 사브르 여고부와 남자일반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사브르 여자일반 광주선발은 김성호(전남체고)가 육상 남고 400계주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4관왕에 올랐으며 박성운(조선대)은 레슬링 남자부 자유형 66k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현민(여수시청)은 씨름 남자일반 용사급 95kg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장원재(순천고)는 양궁 남고부 개인전에서 금빛과녁을 명중시켰다.

황규동(전남역도연맹)은 역도 62kg 용상과 합계에서 은메달 2개를 보탰으며 4관왕이 기대됐던 나이름(전남미용고)은 사이를 엮고 도로개인독주 15km에서 은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았다. 조아름(대불대)은 수영 여자일반 자유형 8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올해 신생팀 목포과학대는 탁구 여대부 준결승에서 최강 한국체대를 누르고 결승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며 15일 금메달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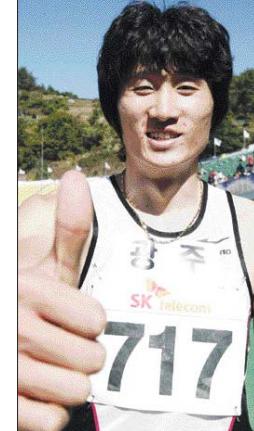
이날까지 광주는 금메달 32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58개를 획득했으며 전남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65개를 따냈다.

/여수=최재호·박양규기자 lion@kwangju.co.kr

“런던올림픽 메달 향해 더욱 노력해야죠”

■ 멀리뛰기 한국신 김덕현

“앞으로 더욱 운동에 진정해 런던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여수 망미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부 멀리뛰기에서 8m13cm를 기록, 21년만에 한국신기록(8m3cm)을 갈아치우며 대회 4연패를 달성한 김덕현(23·광주광역시청)은 “세단뛰기에서 은메달에 머문 것에 대한 명예회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11일 세단뛰기 일반부 결승에서 자신의 기록에도 못미치며 은메달에 머물렀던 김덕현은 이날 결선 2차시기에

서 8m17을 뛴 후 파울로 기록을 인정 받지 못했으나 곧바로 3차 시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벌교 출신인 김덕현은 벌교 삼광중학교 시절 단거리, 중장거리 를 가지 않고 뛰어 광주체고로 진학해 1학년 때 멀리뛰기로 전향했고 2학년 때는 세단뛰기로 종목을 변경했다.

국내 세단뛰기 최강자인 김덕현은 지난 제87회 김천 전국체육대회에서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마의 17m(17m 07)을 깨며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지난 해 방콕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는 17m 02를 뛰어 넘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앞으로 멀리뛰기·세단뛰기에 주력”

■ 오늘의 히어로

육상 4관왕 전남체육고 김성호

“부상에서 회복되지 얼마되지 않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4관왕에 올라 매우 기쁩니다.”

14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1,600m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난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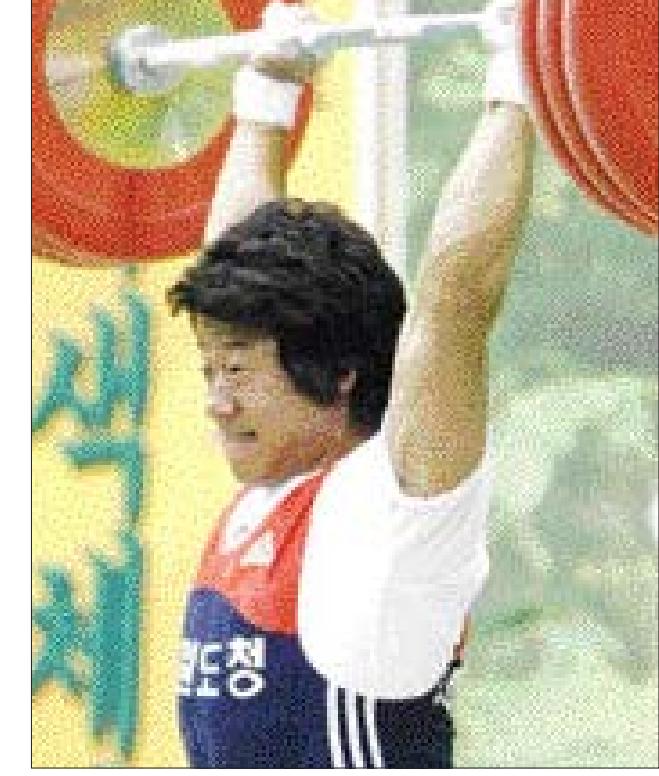
세단뛰기, 13일 멀리뛰기와 400m 계주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 후 4번째 금메달을 따낸 김성호(전남체육고 3년)는 4관왕에 등극한 소감을 밝혔다.

김성호는 전남 체육중 시절 200m와 400m, 세단뛰기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 지난 2005년 소년체육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육상 꿈나무.

고교때 부상으로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1개로 부진했던 김성호는 부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역시 ‘올림픽 금’ 스타들



박태환·장미란·사재혁 3관왕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 가운데 박태환(왼쪽), 사재혁(오른쪽)이 국내 최대 스포츠잔치인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올라 명성을 재확인했다.

박태환은 수영 남자일반 자유형 50m와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14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계영 800m 결승에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1위로 터치패드를 찍어 수영 3관왕을 달성했다.

박태환은 이날 3관왕 달성으로 5관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역도 장미란(25·고양시청)과 사재혁(23·강원도청)도 이름값을 했다.

‘여자 헤리클레스’ 장미란은 지난 13일 보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상 120kg, 용상 145kg을 들어 올려 합계 265kg으로 2개를 세웠다.

박태환은 5관왕 도전

금메달을 따냈던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처럼 다른 선수들의 인상 경기가 다 끝난 뒤 인상 1차 시기에서 나선 장미란은 110kg을 가볍게 들어 올려 일찌감치 인상 우승을 예상했다.

이전까지는 이제인(23·공주시청)이 109kg으로 선두를 달렸으나 그보다 1kg 더 무거운 중량에 성공하며 1위를 확정지은 것.

2차 시기 115kg, 3차 시기 120kg을 연달아 가볍게 성공시킨 장미란은 용상에서도 다른 선수들의 경기가 다 끝난 뒤 도장을 드러냈다.

1차 시기에서 141kg을 들어 올려 용상, 합계에서 금메달도 확보한 장미란은 2차 시기 145kg을 성공시킨 뒤 3차 시기는 기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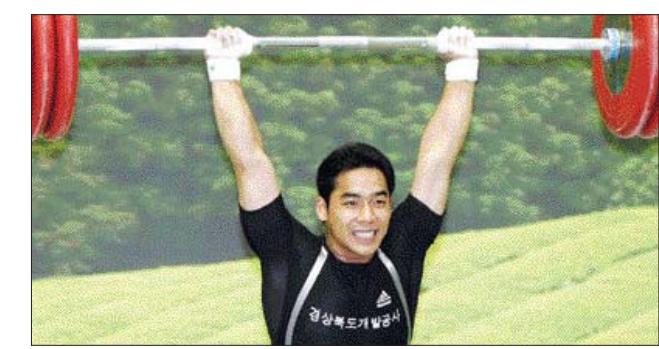
이로써 장미란은 원주공고 재학 시절인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여고부 75kg 이상급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이후부터 체전 금메달 26개를 목에 걸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역도 남자 77kg급 금메달리스트 사재혁도 14일 인상 154kg, 용상 187kg을 들어 합계 341kg으로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51kg을 성공한 사재혁은 김광훈(국군체육부대)이 마지막 3차 시기에서 153kg을 들어 올리자 2차 시기에서 그보다 1kg 더 나가는 바벨을 가뿐히 들어 인상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사재혁은 용상에서 김광훈이 들어 올린 186kg보다 1kg이 더 나가는 187kg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 실패 후 2차 시기에서 성공해 3관왕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림픽 부상 투혼 이배영 3관왕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해 감동을 자아냈던 조선대 출신 이배영(29·경북도시개발공사·시진)이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자일반부 69kg급에서 금메달 3개를 훨씬超えた.

이배영은 14일 보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상 139kg, 용상 176kg을 들어 합계 315kg으로 3관왕에 올랐다.

2002년 제83회 전국체전부터 계속 이 체급 정상을 놓치지 않았던 이배영은 이로써 7년 연속 3관왕에 올랐다.

1999년에도 3관왕에 올랐던 이배영은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인상과 용상에서 2위에 그쳐 2관왕으로 대회를 마쳤었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39kg을 들어 올려 이전까지 1위를 달렸던 노영인(30·울산광역시청)의 137kg을 넘어서며 금메달을 확정지은 이배영은 2,3차 시기를 모두 포기했다.

체력을 아끼지 않고 1차 시기 176kg을 들어 올린 뒤 최재규(30·아산시청)가 마지막 3차 시기에서 177kg 도전에 실패하자 남은 차수에 나서지 않았다. 이배영은 경기 후 “올해 대회가 사실상 다 끝나 후련하다. 앞으로 진로를 여려고 아는 사람과 상의해야겠지만 아마 전국체전 정도에나 더 나가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해 사실상 현역 은퇴를 시사했다.